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Child Care Teachers'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and How It Affects Teacher-Child Interactions: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s' Self-Esteem

박보경¹ 박미자²

Bokyung Park¹ Mi Ja Park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Methods: A total of 450 child care teachers answered questionnaires based on three research variables. Data were analyzed using SEM.

Results: First, child care teachers'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had a direct effect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That is, child care teachers who experienced more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showed more negative teacher-child interactions. Second, child care teachers'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had an indirect effect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through teachers' self-esteem. In other words, when child care teachers experienced more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their self-esteem was lower, which led to increased negative teacher-child interaction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child care teachers and parents. In addition,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by which child care teachers'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influence teacher-child interactions.

key words child care teachers, difficulties communicating with parents, self-esteem, teacher-child interactions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¹ 제1저자(교신저자)

경민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e-mail : pbk0917@hanmail.net)

² 공동저자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정의 양육 기능 약화,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인해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영유아 발달에서 보육교사의 중요성은 보다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기는 발달단계 특성상 환경의 영

항에 더욱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양육자인 부모와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는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강조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의 질적 측면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온정적이고 열정적이며 발달에 적합하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한편, 영유아에게 적대, 위협, 비판 등과 같이 처벌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하고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허용하지 않도록 하며 영유아에게 개입 또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Arnett, 1989). 또한, Hamre 등(2013)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영유아의 사고와 이해, 언어 등을 촉진시키고 강화하는 교육적 지지(instructional support), 영유아의 참여를 격려하거나 영유아가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돕고 영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교정하는 교실 조직(classroom organization) 등이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할 때 영유아의 언어 발달(김영실, 정영실, 2016; 성지현, 2012; Hamre, Hatfield, Pianta, & Jamil, 2014; Leyva et al., 2015) 및 사회성 발달(손희진, 성지현, 2014; 유지연, 황혜정, 2015; Zhang & Nurmi, 2012)이 촉진되었고, 영유아의 긍정적 또래 놀이행동은 증가하는 반면 부정적 또래 놀이행동은 감소하였으며(김영희, 박지현, 2014; 조해연, 이기숙, 2014; 최소영, 신혜영, 2015), 영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많이 나타내고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었다(권영애, 이순복, 2017; 김숙령, 2010; Roorda, Verschueren, Vancraeyveldt, Van Craeyveldt, & Colpin, 2014). 이처럼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선행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에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요인들이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 측면에서는 놀이신념(이윤화, 신나리, 2018), 민감성(우수경, 2018), 정서지능(이정미, 2017), 정서 조절능력(이경례, 문혁준, 2016), 자아존중감(오경숙, 2018), 자기효능감(황종귀, 2017), 교사효능감(손희진, 성지현, 2014; 이경례, 문혁준, 2016; 장종윤, 송하나, 2010; Chung, Marvin, & Churchill, 2005), 전문성 인식(박영숙, 송승민, 이사라, 2018; 손혜숙, 이지영, 2018), 직무만족도(박영숙 등, 2018; 정다워, 이숙, 2008), 직무스트레스(정다워, 이숙, 2008), 소진(김지연, 최미경, 2018), 정서노동(이윤화, 신나리, 2018; 이정미, 이경옥, 2016; Brown, Vesely, Mahatmya, & Visconti, 2018), 행복감(손혜숙, 이지영, 2018; 황종귀, 2017), 아동기 부모애착(이정미, 이경옥, 2016) 등이, 영유아 측면에서는 기질(장종윤, 송하나, 2010; Acar, Torquati, Encinger, & Colgrove, 2018) 등이, 맥락적 측면에서는 가족-교사 간의 의사소통(고경미, 이선경, 2017; 박장희, 노성향, 2018), 학부모참여와 근무환경, 물리적 환경(이형민, 2018) 등이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Bronfenbrenner(1979)의 Ecological Theory에서는 아동이 속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 간의 상호

관계, 즉 중간체계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경험하는 가정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적 맥락들 간에 서로 지지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영유아의 긍정적 발달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은 영유아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맥락이 되므로, 이 시기 두 영역 간의 연결이 특히 강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pstein(1987) 역시 Theory of Overlapping Spheres of Influence를 통해 가정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할 때, 영유아에게 높은 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및 적응을 돕기 위해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유아의 발달수준이나 흥미, 요구 등에 적절한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보이는 정서나 행동, 그리고 영유아의 경험에 대해 보육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이야기 나누며 긴밀하게 의사소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은 가정과 어린이집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경우 영유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보육교사는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보인다고 인식하였으며(고경미, 이선경, 2017; 김영희, 박지현, 2014; 박장희, 노성향, 2018),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유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거나 추구할수록 보육교사는 유아와 보다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지각하였다(강미숙, 송승민, 박남심, 이승은, 2018). 이처럼 보육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보육교사의 자기보고로 측정한 선행 연구들 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 측정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유아교사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상황을 학부모와 더 많이 공유할수록 유아에게 통제, 지시, 비난, 위협 등과 같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임우영, 안선희, 2011), 보육교사와 어머니 간에 유아에 대해 더 많이 의사소통을 할수록 보육교사는 유아와 보다 민감하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Owen, Ware, & Barfoot, 2000). 뿐만 아니라 Chung 등(2005)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3~6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수준, 교사경력, 아동발달/유아교육 분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정도, 교사효능감 및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 등이 교사와 유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 중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이나 관계는 영유아에게 높은 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영아의 경우 아직 언어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더 강조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유아 뿐만 아니라 영아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활발하거나 협력적인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에 대한 질적 연구들에서는 교사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김보들맘, 신혜영, 2000; 박향아, 제경숙, 2003) 본 연구는 학부모와 의사소통 시 보육교사가 지

각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긴다(Rosenberg, 1965).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적응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직무만족도를 더 높게 인식하고(조성연, 2005) 직무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권연희, 2010) 공감 기술을 더 많이 보이고(Ceylan, Biçakçi, Gürsoy, & Aral, 2009) 높은 교사효능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변은경, 장경오, 2015).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높은 관련성을 근거로(Huang, Liu, & Shiomi, 2007; Khan, Fleva, & Qazi,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Fleming과 Watts(1980)는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사회적 자신감임을 밝혔는데, 이는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러한 가정은 최근의 몇몇 선행 연구들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보육교사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영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며(오경숙, 2018),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도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였다(류민영, 2014).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교사의 심리 내적 특성들인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역시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보육교사 또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아교사가 유아와 보다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지명, 2015; 황종귀, 2017).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근거할 때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선행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영유아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기며 영유아에게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영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경우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한다. 몇몇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는 두 변인, 즉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 간에도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직무수행에서의 어려움과 자기수용이나 자기주장과 같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 간에 부적 상관이 발견되었으며(김용숙, 전연주, 박지영, 2013),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기효능감 간에도 부적 상관이 밝혀졌다(이효영, 문혁준, 2013). 또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사의 대인관계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자아개념과 부적 상관이 보고되었으며(민선우, 문혁준, 2004), 유아교사의 동료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길경숙, 노수남, 2004).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들은 발견하기 쉽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몇몇 선행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며,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덜 느끼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보육교사와 유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유아 뿐만 아니라 영아 또한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기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각각의 관련성을 근거로,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려우나, 보육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직무수행에서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관련성(김용숙 등, 2013)과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정적 관련성(오경숙, 2018)을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에 기초할 때 보육교사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덜 보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보육교사와 유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고자 시도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최해주와 문수백(2013)은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관계가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보육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였다. 최해주와 문수백(201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연구들(강미숙 등, 2018; 고경미, 이선경, 2017; 김영희, 박지현, 2014; 박장희, 노성향, 2018; Owen et al., 2000)에서 밝혀진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연구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보육교사에게 주요한 내적 특성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이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경로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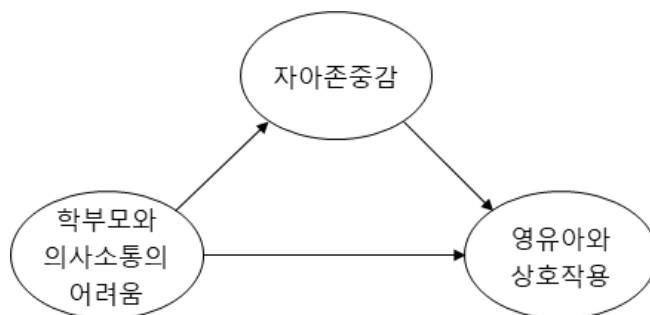


그림 1.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원, 안산 등 경기도와 인천 및 천안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450명이다. 본 연구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5명(1.1%), 여성이 445명(98.9%)이었고, 연령은 30세 이하가 194명(43.1%), 31~40세가 113명(25.1%), 41세 이상이 143명(31.8%)이었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4명(7.6%), 전문대학 졸업이 256명(56.9%), 대학교 졸업이 143명(31.8%), 대학원 졸업이 17명(3.8%)이었다. 보육교사로서의 경력은 5~10년 미만이 138명(30.7%), 10년 이상이 95명(21.1%), 3~5년 미만이 93명(20.7%) 순으로 많았으며,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220명(48.9%), 민간어린이집이 140명(31.1%), 법인어린이집이 40명(8.9%) 순으로 많았다. 담당 영유아의 연령은 만 2세가 117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만 1세가 87명(19.3%), 만 3세가 60명(13.3%) 순이었으며, 월 급여는 150~200만원 미만이 176명(3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200~250만원 미만이 120명(26.7%), 150만원 미만이 116명(25.8%)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손환희와 정계숙(2011)이 제작한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학부모와 의사소통 시 교사가 지각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교사, 학부모,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와 관련된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12문항)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마음이 긴장됩니까?’,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선생님의 의사소통기술 능력이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등이, 학부모와 관련된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5문항)에는 ‘교사에 대한 부모의 태도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을 느끼니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와 기대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등이,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10문항)에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기관장의 교육적인 면에서의 전문적인 지도 조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니까?’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Cronbach's α 는 교사와 관련된 어려움이 .80, 학부모와 관련된 어려움이 .84,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이 .77이었다.

2) 자아존중감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백혜원(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한 서정은(2016)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영유아와 상호작용

보육교사의 영유아와 상호작용은 송근영(2017)이 제작한 보육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교사-영유아 관계 형성, 교사-영유아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 영유아의 문제 상황 지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1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영유아 관계 형성을 측정하는 문항(5문항)에는 ‘나는 영유아의 요구에 대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반응한다.’, ‘나는 개별 영유아의 기질, 생활리듬, 놀이 선호 등을 파악하여 민감하게 상호작용한다.’ 등이, 교사-영유아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문항(6문항)에는 ‘나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영유아의 요구나 질문에 대해 미소, 집중하기 등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 등이,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을 측정하는 문항(5문항)에는 ‘나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나는 영유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격려한다.’ 등이, 영유아의 문제 상황 지도를 측정하는 문항(5문항)에는 ‘나는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나는 영유아가 부정적 정서 등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영유아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Cronbach's α 는 교사-영유아 관계 형성이 .89, 교사-영유아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86,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이 .90, 영유아의 문제 상황 지도가 .88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17년 11~12월에 수원, 안산 등 경기도와 인천 및 천안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7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50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예비 분석을 위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을 위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예비 분석으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하위요인들은 평균 1.74~1.97 ($SD = .42 \sim .60$), 자아존중감은 평균 3.82 ($SD = .55$),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하위요인들은 평균 3.97~4.14 ($SD = .53 \sim .56$)이었다. 왜도는 $-.35 \sim .49$ 로 절대값이 3 미만이고 첨도는 $-.59 \sim .61$ 로 절대값이 10 미만이므로, 정규성 가정의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첫째,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r_s = -.38 \sim -.17, p < .001$). 즉,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영유아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자아존중감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r_s = -.49 \sim -.26, p < .001$). 즉,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셋째,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r_s = .43 \sim .48, p < .001$). 즉, 보육교사는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영유아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관계 (N = 450)

	1	2	3	4	5	6	7	8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1. 교사와 관련된 어려움	-							
2. 학부모와 관련된 어려움	.45***	-						
3.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어려움	.52***	.43***	-					
자아존중감								
4. 자아존중감	-.49***	-.26***	-.28***	-				
영유아와 상호작용								
5. 교사-영유아 관계 형성	-.37***	-.22***	-.28***	.48***	-			
6. 교사-영유아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	-.33***	-.21***	-.27***	.43***	.74***	-		
7.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	-.35***	-.17***	-.26***	.44***	.66***	.77***	-	
8. 영유아의 문제 상황 지도	-.38***	-.18***	-.29***	.44***	.65***	.74***	.85***	-
M	1.88	1.97	1.74	3.82	3.98	3.97	4.14	4.06
SD	.42	.60	.47	.55	.56	.55	.54	.53
왜도	.29	.49	.42	-.33	-.16	-.05	-.35	-.18
첨도	-.14	.19	-.59	-.53	.20	.04	.61	.51

*** $p < .001$.

2.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06.05$ ($df = 18$, $p < .001$), $\chi^2/df = 5.89$, TLI = .93, CFI = .95, RMSEA = .10으로 나타났다. TLI와 CFI의 경우 .90보다 커야 한다는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RMSEA의 경우 .80보다 작아야 한다는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홍세희, 2000). 이에 수정지수를 기초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의 하위요인들 중 교사-영유아 관계 형성(e5)과 교사-영유아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e6)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51.83$ ($df = 17$, $p < .001$), $\chi^2/df = 3.05$, TLI = .97, CFI = .98, RMSEA = .07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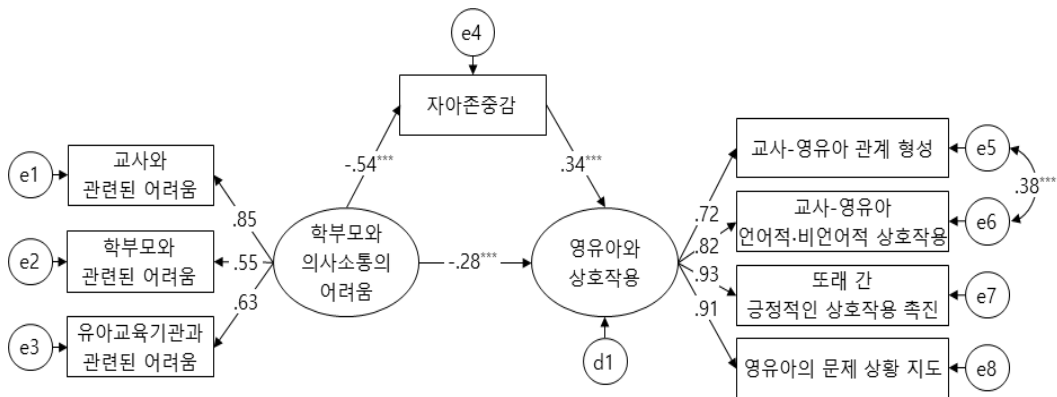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첫째,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부정 영향을 미쳤다($\beta = -.28$, $p < .001$). 즉, 보육교사는 학부모

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덜 보였다. 둘째,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beta = -.54, p < .001$)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34, p < .001$). 즉,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덜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표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 = 450)

경로	B	β	SE	C.R.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 영유아와 상호작용	-.31	-.28	.07	-4.40***
자아존중감 → 영유아와 상호작용	.25	.34	.04	6.12***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	-.83	-.54	.09	-9.63***

*** $p < .001$.



*** $p < .001$.

그림 2.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beta = -.18, p < .01$). 다중상관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30% 설명하였고,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아존중

감을 29% 설명하였다.

표 3. 연구모형에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450)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 영유아와 상호작용	-.28**	-.18**	-.46**	.30
자아존중감	→ 영유아와 상호작용	.34**	-	.34**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	-.54**	-	-.54**	.29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45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덜 보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수록 보육교사가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거나(강미숙 등, 2018; 고경미, 이선경, 2017; 김영희, 박지현, 2014; 박장희, 노성향, 2018) 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Owen et al., 2000). 또한, 유아교사의 경우에도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보다 활발히 할수록 유아에게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임우영, 안선희, 2011).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힌 한편, 본 연구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시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유아 뿐만 아니라 영아도 포함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 즉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큰 어려움 없이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때 영유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영유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 더해, 국외의 연구들은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또는 영유아의 학업성취 등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Owen 등(2000)은 보육교사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이 보육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과 어머니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Galindo와 Sheldon(2012)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유치원(kindergarten)의 노력이 유치원에 대한 더 높은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읽기나 산수 등에서 유아의 보다 높은 성취로 연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긍정적 관계, 학부모와 영유아 간의 긍정적 관계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을 위해 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 서로 간에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둘째,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덜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와 같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경로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발견하기 쉽지 않으며,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미숙 등, 2018; 박장희, 노성향, 2018; Owen et al., 2000). 본 연구와 같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탐색하고자 시도한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관계와 보육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의 매개적 역할을 밝힌 최해주와 문수백(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최해주와 문수백(2013)의 연구와 더불어,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보다 확장하여 직무만족도나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보육교사의 내적 특성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가 영유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주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또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이는 영유아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접 경로를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보육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로 인한 직무수행에서의 어려움과 자기수용이나 자기주장과 같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들 간에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김용숙 등, 2013)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유아교사의 대인관계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개념 간에 부

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민선우, 문혁준, 2004)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육교사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자아존중감을 낮추거나 자아개념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 과정에서 부정적 또는 불쾌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교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효영과 문혁준(2013)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대인 간 의사소통능력이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커다란 부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근거할 때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보육교사로서 양성 또는 재교육 과정 중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보육교사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보육교사나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사가 영유아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들(문미숙, 2018; 오경숙, 2018)이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유아교사가 유아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류민영, 2014)와 동일한 맥락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자신의 일을 더욱 의미있게 여기고 교사 자신이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보육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신뢰하므로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적극적이고 자신감있게 행동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영유아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자아존중감과 교사효능감 간의 밀접한 관련성(변은경, 장경오, 2015; Huang et al., 2007; Khan et al., 2015)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영유아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고자 보육교사가 학부모와 큰 어려움 없이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하위요인들을 비교해본 결과, 본 연구의 경우 교사 자신과 관련된 어려움($M = 1.88, SD = .42$) 또는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어려움($M = 1.74, SD = .47$)에 비해 학부모의 부적절한 태도나 학부모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학부모와 관련된 어려움($M = 1.97, SD = .60$)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부성숙, 박정하, 2016; 정계숙, 2011)에서도 일관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할 때,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보육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동반자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보육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이나 낮은 보수,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보다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측정변인들을 교사 보고로 측정하여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주의가 요구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고자를 통해 측정하거나 제 3자에 의한 관찰을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자료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조사되어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이 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 유아 뿐만 아니라 영아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영아반과 유아반에서 일어나는 보육교사, 학부모 그리고 영유아 간의 역동이 부각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 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육교사가 특정 영유아의 학부모와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특정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맥락이 되는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들은 국외의 연구들(Pirchio, Tritrini, Passiatore, & Taeschner, 2013; Powell, Son, File, & San Juan, 2010)과 같이 보육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가 학업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등 영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및 영유아와 상호작용 간의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Bronfenbrenner(1979)가 제안한 중간체계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보다 확장하여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영유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이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기제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즉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숙, 송승민, 박남심, 이승은 (2018).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부모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모형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5), 1-17. doi:10.14698/jkce.2018.14.05.001
- 고경미, 이선경 (2017).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교사-유아 상호작용 및 가족-교사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3), 397-414. doi:10.22251/jlcci.2017.17.13.397
- 권연희 (2010).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조직풍토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437-455.
- 권영애, 이순복 (2017).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6**(2), 115-129. doi:10.17643/KJCE.2017.26.2.06
- 길경숙, 노수남 (2004). 유아 교사의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11), 123-136.
- 김보들맘, 신혜영(2000).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53-276.
- 김숙령 (2010). 영아-교사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과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1**, 197-215.
- 김영실, 정영실 (2016). 영아의 공동주의와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1), 133-152. doi:10.18023/kjece.2016.36.1.006
- 김영희, 박지현 (2014).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4**(3), 135-152. doi:10.18023/kjece.2014.34.3.007
- 김용숙, 전연주, 박지영 (2013).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 및 직무수행 의 어려움 인식 간의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100-1108. doi:10.5762/KAIS.2013.14.3.1100
- 김지연, 최미경 (2018). 보육교사 소진이 보육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9**(3), 127-139. doi:10.5723/kjcs.2018.39.3.127
- 류민영 (2014). 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교사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숙 (2018).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놀이교수효능감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선우, 문혁준 (2004). 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직무 스트레스 및 직무 만족도와와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24**(1), 5-27.
- 박영숙, 송승민, 이사라 (2018).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전문성 인식의 매개 효과 검증. **생애학회지**, **8**(1), 1-16. doi:10.30528/jolss.2018.8.1.001
- 박장희, 노성향 (2018). 가정-보육기관 소통과 유아 또래놀이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보육기관에 대한 유아 호감의 매개효과 검증.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219-238.
- 박향아, 제경숙(2003). 유아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2**(3), 67-80.

- 백혜원(1993). 무용전공 여대생의 심리적 특성 비교: 자기 신체평가·자기-존중심·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은경, 장경오 (2015). 보육교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6), 3982-3990. doi:10.5762/KAIS.2015.16.6.3982
- 부성숙, 박정하 (2016). 영유아교사의 듣기능력이 교사-부모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103-121. doi:10.14698/jkce.2016.12.103
- 서정은 (2016). 유아의 도전행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도전략과 직무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영유아인권인식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지현 (2012). 유아의 연령과 놀이 영역에 따른 유아-보육교사 상호작용과 유아 언어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229-253. doi:10.18023/kjece.2012.32.4.011
- 손혜숙, 이지영(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행복감 및 정서지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22**(6), 414-425. doi:10.24231/rici.2018.22.6.414
- 손환희, 정계숙 (2011).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213-232.
- 손희진, 성지현 (201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교사-유아 상호작용 질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2), 191-209. doi:10.5723/KJCS.2014.35.2.191
- 송근영 (2017). 보육과정 컨설팅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숙 (2018). 보육교사의 인성이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중심으로.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수경 (2018). 영아교사의 학력, 경력, 민감성, 교수효능감 및 어린이집 기관풍토와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553-572. doi:10.22251/jlcci.2018.18.24.553
- 유지연, 황혜정 (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3. doi:10.14698/jkce.2015.11.3.001
- 이경례, 문혁준 (2016). 영아교사의 성인애착,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1-23.
- 이윤화, 신나리 (2018). 보육교사의 놀이신념과 정서노동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2**(1), 7-19.
- 이정미 (2017).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영유아교육·보육연구**, **10**, 65-85.
- 이정미, 이경옥 (2016). 영아교사의 아동기 부모애착 지각과 교사-영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 연구: 정서노동의 매개효과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2), 213-237.
- 이형민 (2018).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2), 168-179. doi:10.7466/JKHMA.2018.36.2.168
- 이효영, 문혁준 (2013). 보육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간 의사

- 소통 능력이 부모-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4), 41-57.
- 임우영, 안선희 (2011). 유아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4), 323-350.
- 장종윤, 송하나 (2010).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과 교사효능감이 교사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13**, 113-122.
- 정계숙 (2011). 유아교사의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3), 143-164.
- 정다워, 이숙 (2008). 보육교사 관련변인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3**(1), 31-52.
- 조성연 (2005).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1), 359-373.
- 조해연, 이기숙 (2014). 어린이집 2세 학급의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교사 상호작용의 질이 영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5**(3), 115-136. doi:10.15854/jes.2014.09.45.3.115
- 최소영, 신혜영 (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doi:10.14698/jkccc.2015.11.2.311
- 최해주, 문수백 (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원장의 변혁적 지도성, 그리고 부모-교사 협력관계와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69-8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지명 (2015).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탄력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 연구. **인문사회**, **21**, **6**(3), 591-607.
- 황종귀 (2017). 보육교사의 행복감, 자기효능감과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간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7-25.
- Acar, I. H., Torquati, J. C., Encinger, A., & Colgrove, A. (2018). The role of child temperament on low-income preschool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teache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7*(1), e2045. doi:10.1002/icd.2045
- Arnett, J. (1989). Caregivers in day-care centers: Does training matte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4), 541-552. doi:10.1016/0193-3973(89)90026-9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E. L., Vesely, C. K., Mahatmya, D., & Visconti, K. J. (2018). Emotions matter: The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labour on preschool teacher and children interac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8*(12), 1773-1787. doi:10.1080/03004430.2017.1286336
- Ceylan, R., Biçakçi, M. Y., Gürsoy, F., & Aral, N. (2009).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rofessional self-esteem and empathic skill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5), 679-682. doi:10.2224/sbp.2009.37.5.679
- Chung, L.-C., Marvin, C. A., & Churchill, S. L. (2005). Teacher factors associated with preschool

- teacher-child relationships: Teaching efficacy and parent-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5(2), 131-142. doi:10.1080/1090102050250206
- Epstein, J. L. (1987). Toward a theory of family-school connections: Teacher practices and parent involvement. In K. Hurrelmann, F.-X. Kaufmann, & F. Lösel (Eds.), *Social intervention: Potential and constraints* (pp. 121-136). New York: DeGruyter.
- Fleming, J. S., & Watts W. A. (1980).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Some results for a colleg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921-929. doi:10.1037/0022-3514.39.5.921
- Galindo, C., & Sheldon, S. B. (2012). School and home connections and children's kindergarten achievement gains: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invol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1), 90-103. doi:10.1016/j.ecresq.2011.05.004
- Hamre, B., Hatfield, B., Pianta, R., & Jamil, F. (2014). Evidence for general and domain-specific elements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Associations with preschool children'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5(3), 1257-1274. doi:10.1111/cdev.12184
- Hamre, B. K., Pianta, R. C., Downer, J. T., DeCoster, J., Mashburn, A. J., Jones, S. M. et al. (2013). Teaching through interactions: Testing a developmental framework of teacher effectiveness in over 4,000 classroom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13(4), 461-487. doi:10.1086/669616
- Huang, X., Liu, M., & Shiomi, K. (2007).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 efficacy, teacher self-esteem and orientations to seeking help.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5), 707-716. doi:10.2224/sbp.2007.35.5.707
- Khan, A., Fleva, E., & Qazi, T. (2015). Role of self-esteem and general self-efficacy in teachers' efficacy in primary schools. *Psychology*, 6(1), 117-125. doi:10.4236/psych.2015.6101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yva, D., Weiland, C., Barata, M., Yoshikawa, H., Snow, C., Treviño, E. et al. (2015).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Chile and their associations with prekindergarten outcomes. *Child Development*, 86(3), 781-799. doi:10.1111/cdev.12342
- Owen, M. T., Ware, A. M., & Barfoot, B. (2000). Caregiver-mother partnership behavior and the quality of caregiver-child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413-428. doi:10.1016/S0885-2006(00)00073-9
- Pirchio, S., Tritrini, C., Passiatore, Y., & Taeschner, T. (2013). The ro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educators for child behaviour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about Parents in Education*, 7(2), 145-155.
- Powell, D. R., Son, S.-H., File, N., & San Juan, R. R. (2010). Parent-school relationships and children's academic and social outcomes in public school pre-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8(4), 269-292. doi:10.1016/j.jsp.2010.03.002
- Roorda, D. L., Verschueren, K., Vancraeyveldt, C., Van Craeyveldt, S., & Colpin, H. (2014). Teacher-

- 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al adjustment: Transactional links for preschool boys at risk.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5), 495-510. doi:10.1016/j.jsp.2014.06.00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hang, X., & Nurmi, J.-E. (201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Chinese preschool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125-135. doi:10.1016/j.appdev.2012.03.001

논문투고: 19.04.14
수정원고접수: 19.05.27
최종게재결정: 19.06.12